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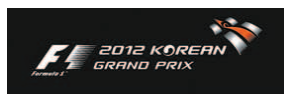
2012 F1 코리아그랑프리 12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3일간의 일정을 체크하면 효과적인 관람이 가능하다. 작년 대회에서 8만 명이 넘는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신들이 300km 이상 질주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 ‘블록버스터’ F1…스타트 장면에 3조원

### 영암 F1 코리아 요일별 관전 포인트

금-연습주행 3시간…F1 관람이 2만원  
토-‘1번 그리드’ 위한 치열한 켈리파잉

일-오후 3시 정각…대망의 레이스데이  
2~3초의 스타트…마신 24대 굉음 질주



그랑 프리가 열리는 주말을 레이스 위크엔드(Race weekend)라고 부른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비운송과 마신 조립 및 세팅, 전략회의를 거친 뒤 연습주행이 열리는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승부에 들어간다.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의 경기인 F1(포뮬러 원)은 레이스데이인 일요일뿐만 아니라 연습주행과 켈리파잉(이하 Q)이 치러지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충분히 흥미롭게 경기를 즐길 수 있다. 12~14일까지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개최되는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요일별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 ●금요일(12일) : 연습주행 1, 2

모든 자동차 경주의 기본은 랩(LAP)타임이다. 랩은 트랙의 1바퀴를 의미한다. 참고로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의 경우 1바퀴는 5.615km고, 가장 빠른 코스 레코드는 2011년 세바스찬 페렐이 기록한 1분39초 065다. 금요일에 열리는 연습주행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랩타임을 단축하기 위해 마신의 세팅을 점검하고 기술적인 단점을 보완하는 날이다. 승부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새로운 서킷에 적응하며 날씨, 노면 상태, 드라이버의 컨디션 등 수많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연습주행은 오전과 오후 1시간30분씩 두 차례 진행되는데, 이 3시간은 우승을 위한 마지막 담금질을 할 수 있는 금쪽같은 시간이다. 금요일 서킷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마신과 드라이버들을 만나보고 싶다면 연습주행이 열리는 시간을 알아둬야 한다. 오전에는 10시~11시30분, 오후에는 2시~3시 30분까지 연습주행이 실시된다. 금요일에 경기장을 찾으면 주말 티켓 가격 72만원인 메인그랜드스탠드에서의 F1 관람을 2만원에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 ●토요일(13일) : 연습주행 3, 켈리파잉

레이스 전날인 토요일에는 1번의 연습주행(11시~12시)과 결승전 출발 순서를 가리는 Q(켈리파잉)가 진행된다. 출발 순서가 곧 순위

로 인식될 정도로 Q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선수들은 마지막 연습주행 랩타임을 재면서 최대한의 기량을 시험한다. 때문에 토요일 F1 관람 역시 일요일 못지않은 스피드와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 연습주행을 마친 뒤 오후에는 드디어 Q가 세 번으로 나뉘어 진행된다(2시~3시)된다. Q1(20분)에서는 24명의 드라이버가 20분간 자유롭게 트랙을 달리며 랩타임을 재는데 가장 좋은 기록을 자신의 기록으로 인정받는다. Q1이 종료되면 기록 순으로 7명이 탈락(18위~24위)그리드 배정)하고 남은 17명이 다시 Q2를 치른다. Q2(15분)에서 다시 7명이 탈락하고(11~17위)그리드 배정) 마지막 10명이 Q3에 진출한다. 토요일 오후 2시50분~3시까지 10분간 열리는 Q3는 결승전을 발발케 할 정도의 화려한 스피드 경쟁이 펼쳐지기 때문에 F1 마니아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순간이다. 10명의 레이서들은 통상 2~3차례 서킷에 나와 최고의 랩타임을 내기 위한 승부수를 띄운다. Q3에서 최고의 랩타임을 기록하면 결승전 맨 앞자리 출발 위치인 1번 그리드를 배정받는다. F1 코리아그랑프리 서킷은 생각보다 추월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는 서킷이다. 1번 그리드 배정은 그래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일요일(14일) : 레이스데이

드디어 레이스 당일이다. 오후 3시 정각에 24대의 차량들이 그리드 배열을 마친 후 동시에 출발해 55랩을 가장 빨리 통과하는 선수가 우승자가 된다.

레이스데이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스타트 장면이다. 2~3초에 불과한 이 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자그마치 3조3000억 원에 달한다. 경주차 24대의 가격(대당 100억)과 드라이버 24명의 연봉(평균 100억 이상), 200여개 기업의 마케팅 비용(대회당 평균 2조7000억), 12개 팀의 대회당 소요 예산(1500억)원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24대의 마신이 엄청난 굉음을 내며 동시에 출발하는 스타트 장면은 F1의 모든 매력을 압축해 놓은 환희의 순간이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4시간 룰이 신설돼 레이스 시간은 최대 4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이는 레이스가 중단되는 시간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레이스가 아무리 길어져도 오후 7시만 종료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 싸이, F1 우승 깃발 ‘체커기’ 든다



F1국제자동차 경주 홍보대사인 가수 싸이(사진)가 F1 코리아 그랑프리 최종 우승자를 알리는 체커플래거로 나선다. F1대회조직위원회는 싸이가 2012 F1 한국 대회 체커플래거를 흔드는 인사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흰색과 검은색 체크무늬로 된 체커플래그는 모든 경주가 종료됐음을 알리는 깃발이다.

## F1 ‘헬멧의 제왕’을 찾아라

12개 팀 출전 드라이버 24명…헬멧으로 구별

F1은 12개 팀에서 팀당 2명씩 모두 24명의 드라이버가 출전한다. 팀은 마신의 디자인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하지만 300km로 질주하고 있는 같은 팀의 두 선수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헬멧 디자인이다. 24명의 선수는 모두 각자 고유한 컬러와 디자인의 헬멧을 쓴다. 선수 헬멧 디자인을 알아두면 레이스 중반 선수들이 모두 뒤섞여도 쉽게 응원하는 선수를 찾아낼 수 있다. 이 방법은 서킷에서나 TV 중계를 볼 때나 가장 효율적인 선수 구별법이다.

원성열 기자



1. 세바스찬 페렐(레드불) 2. 마크 웨버(레드불) 3. 젠스 버튼(맥라렌) 4. 루이스 해밀턴(맥라렌) 5. 미하엘 슈마허(메르세데스) 6. 니코 로즈버그(메르세데스) 7. 파스토르 말도나도(윌리엄즈) 8. 브루노 세나(윌리엄즈) 9. 폴 디 레스타(포스인디아) 10. 페르난도 알론소(페라리) 11. 펠리에 마쎈(페라리) 12. 니코 홀겐베르그(포스인디아) 13. 카미리 코비아시(자우버) 14. 세르지오 페레즈(자우버) 15. 다니엘 리카도(토로로소) 16. 장-에릭 베뉴(토로로소) 17. 키미 라이코넨(로터스) 18. 로망 그로장(로터스) 19. 헤이키 코발라이넨(케이타렌) 20. 비탈리 페트로프(케이타렌) 21. 페드로 델 라 로사(HRT) 22. 나레인 가티키안(HRT) 23. 티모 글록(마루시아) 24. 사를 픽(마루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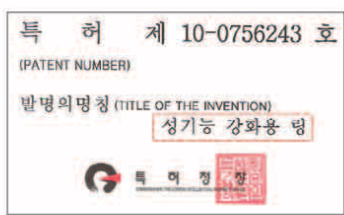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2357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 수술 없이 강한 남자! “뉴 맨”!!



대표이사 서영숙



• 일본지사 T. 03-6278-9461  
• 중국지사 T. 0433-286-5031

#### ▶남자는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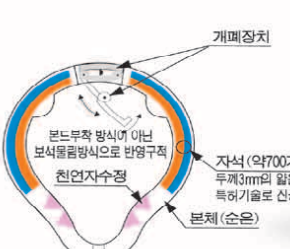
킨제이 보고서는 성인남성의 평균 성생활 횟수가 20대 하루 1회, 30대 주4회, 40대 주2회, 50대 주1회, 60대는 월3회 정도라는 보고를 낸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성은 이보다 많은 횟수를 원한다. 특히 더 크고 강해져서 여성이 만족할 만큼의 시간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확대와 조루에 관한 비노기과적 시술을 생각하는 남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확대시술 등은 모양이 변형되어 자연스러움을 잃을 수 있고 시간이나 금전적 면에서도 막심 실행에 옮기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을 바꿔 ‘뉴 맨’ 체험을 먼저 권해 드린다. ‘뉴 맨’은 자연 그대로 커지고 굵어지면서 시간을 연장시키는 효과와 함께 보다 많은 횟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짧고 발기력에 아무 문제없지만 더 크고 두꺼워져서 시간과 횟수의 연장을 원하는 남성이나 발기강직도가 약하고 중간에 시들어 약물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운 중년이상의 남성에게도 똑같은 효능을 나타낸다. 대한민국특허청에서 확대 조루 발기력강화의 효능을 인정 ‘남성성기능강화용 링’이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유일하게 특허를 받은 ‘뉴 맨’은 출시 8년에 40년에 가까운 고객과 일본, 중국, 지사 설립, 전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 ▶왜 점점 커지는가?

음경 동맥의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임체적 디자인, 천연자수점의원적외선, 700가우스의 자기장효과로 음경해면체의 혈액유입량이 평상시보다



30%정도 증가, 더 커지고 굵어지고 단단해진다. 이는 헬스로 근육과 몸집을 키우고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서 새벽의 강한 발기와 관계 시의 힘찬 마찰은 점점 더 크고 강한 남성을 만들어준다.

지금까지 ‘뉴 맨’을 구입한 40만 가까운 남성대부분이 큰 사이즈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 ▶왜 시간이 연장되는가?

음경통풍 성 신경을 감싸는 음경외피는 피스톤 운동 시 팽팽해져서 귀두와 함께 여성기를 마찰하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보편적인 외피는 팽팽하지 않아 밀리면서 몸통 성 신경을 자극하여 빠른 사정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뉴 맨’을 착용하면 커지고 굵어지는 효과로 팽팽해진 외피가 성신경의 자극을 줄여주어 시간을 연장시킨다.

#### ▶15일사용 후 이유 없는 반품, 전액환불!

제품의 자신감과 회사의 책임감에 의한 변함없는 약속이다.

**뉴맨! 30만 고객들과 전세계 20여개국 수출!**

NAVER DdM에서 [뉴맨]을 검색하세요

**T.1577-5579, 010-7636-334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8-1 한도빌딩 6층 ㈜케이앤제이스포츠

## 男子는 힘이다!

## 30~80대까지 힘차고 활력 있게!

한번 먹으면 꼭 다시 찾는 힘! 힘! 힘!  
손가락 들 힘만 있어도 생각한다는 그 힘!

그 힘을 보충해 드립니다.

식약청 심사/준동과 미국직수입품으로써  
식품에서 채취한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없으며 효과가 너무 좋아 이것저것 다 먹어봐도 실망했던 남성들이 한번만 먹어 보면 꼭 다시 찾는 제품입니다.



효과없을시 반품, 환불

**1577-0139, 010-7533-3346**